

서울재팬클럽 모조품단속 건의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인 모임인 서울재팬클럽과 지식경제부는 12.14일(월) 간담회를 개최하여, 일본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확대를 당부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제2위 對韓투자국인 일본기업인들로부터 투자환경개선관련 의견수렴과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9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서울재팬클럽측에서 아와야 쓰토무 이사장과 기업인·JETRO 등 24명이, 우리정부측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을 비롯 일본기업인들의 관심사와 관련된 기획재정부, 노동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에서 함께 참석하였다. 서울재팬클럽(SJC, Seoul Japan Club)은 1997년 설립된 한국 진출 일본기업인들의 모임으로 회원 1,644명, 법인 355개사가 등록되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은 한국정부의 선제적인 노력결과 세계금융위기에서 가장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경제현황과 녹색성장전략 등 신성장동력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정책 등 투자환경을 설명하였다. 최근 몇 해는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감사를 표하며, 한·일 양국의

발전적인 경제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던 부품소재전용공단에 대한 일본기업들의 투자를 더욱 확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재팬클럽은 한국의 투자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일본에서 투자한 기업이 한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들로서 노사관계, 금융, 세무, 지적재산권, 생활환경개선 등 45개 사항을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주요 건의내용은 법정퇴직금제도 개선, 금융실명 확인절차 개선, 디자인 및 상표등록요건 개선, 외국인 근로소득 비과세특례 적용기간 연장 등이다.

부처별로 특허청(14), 금융위(6), 노동부(5), 기재부(4), 방통위, 환경부, 복지부, 지경부(각2), 농식품부, 문광부, 보훈처, 금감원, 한은, 중기청, 조달청, 경찰청(각 1)이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측 참석자는 건의사항별 세부 내용을 서울재팬클럽측과 논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취지 등에 대해 상호간에 의

구분	No	건의사항	소관부서	비고
노동· 노사관계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동의의무 폐지	노동부	계속
	2	유급휴가의 보상금지	"	계속
	3	법정퇴직금제도의 개정	"	계속
	4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및 차별금지 완화	"	계속
	5	사용자의 노조 재정지원 금지	"	계속
	6	국가유공자 고용의무 탄력적 운영	보훈처	계속
금융	7	금융실명 확인절차 개선	금융위	신규
	8	장외파생상품 영업인가에 요구되는 시스템 현지화	"	신규
	9	증권회사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제	"	신규
	10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시험제도 개선	"	신규
	11	국외지배주주 지분보증에 의한 국내차입 지급이자 손금처리	기재부	계속
	12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제 완화	금감원	계속
	13	유가증권보유제도의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단력적 운용	금융위	계속
	14	비거주자에 대한 한국 원화시장의 개방	기재부	계속
	15	동일인 또는 동일 그룹에 대한 대출규제 개선	금융위	계속
	16	중소기업 대출비용 규제의 철폐	한국은행	계속
세무	17	외국인 근로소득 비과세특례 적용기간 연장	기재부	계속
	18	'중소기업' 정의변경에 따른 외국인투자가 자산총액 환산 기준환율 개정	중기청	계속
	19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시 환율적용규정 정비	기재부	신규
지재권	20	식물품중보호제도 대상식물 확대	농식품부	신규
	21	TV프로그램, 극장용 영화라이선스관련	방통위	신규
	22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 대책 개선	문광부	신규
	23	특허출원 절차 개선	특허청	계속
	24	특허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보호	"	계속
	25	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절차 보정 범위 확대	"	계속
	26	의견서만 제출된 경우의 심사	"	신규
	27	디자인 및 상표등록 요건 개선	"	신규
	28	화면디자인 보호 확충	"	신규
	29	상표의 선후출원에 관한 규정 적용의 판단 시기에 대해	"	계속
	30	일본술 상표등록	"	신규
	31	무효심판 청구인의 적격 제한 철폐	"	계속
	32	특허권 등의 유효·무효를 법원에서 판단하여 분쟁의 조기해결	"	계속
	33	침해 입증의 용이화	"	계속
	34	간접침해 규정 확충	"	신규
	35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 운용 개선	"	신규
	36	모조품 규제단속 강화, 지적재산권 의식 제고	"	계속

개별사항	37	신약의 국제적 수준의 약가 설정-	복지부	신규
	38	신약 승인·약가 수재 심사 기간의 대폭적인 단축	"	계속
	39	통신기기 안정인증 절차 개선	방통위	신규
	40	전자제품 대여계약 종료시 회수운반	환경부	신규
	41	수입 중고 전기제품 안전검사	지경부	신규
	42	중소기업을 배려한 정부조달제도 창설	조달청	신규
	43	국가산업단지내에서의 신규사업(폐기열을 이용한 농업) 추가	지경부	계속
	44	소량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샘플의 수입절차 확인방법 개선	환경부	계속
생활환경개선	45	생활환경 및 교통문제 개선	경찰청	신규

견을 교환하였다. 지식경제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서울재팬클럽과 논의된 건의사항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검토나 수용 곤란 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용가능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기업의 국내투자 현황을 보면, 연도별 투자실적에서 2004년에 신고건수 557건에 22억3백만불, 2005년에 612건에 18억81백만불, 2006년에 584건 21억11백만불, 2007년에 470건에 9억9천만불, 2008년에 460건에 14억23백만불, 2009년 12월 8일자 누계 352건 18억81백만불을 기록하였다. 실제 도착기준액은 이보다 작은 편이다.

산업별 투자실적은 2004년 제조업이 88%, 서비스업이 11.9%이다, 제조업의 비중은 2005년 34.3%, 2006년 85.3%, 2007년 64.6%, 2008년 48.1%, 2009년 61.9%이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2005년 65.5%, 2006년 14.5%, 2007년 33.6%, 2008년 51.5%, 2009년 37.7%이다.

업종별 투자실적은 2004년 제조업 19억91백만불 중에서 전기전자가 13억8천만불이고, 2005년 제조업 6억45백만불 중에서 전기전자가 1억4백만불이다. 2006년 제조업 18억1백만불 중에서 전기전자가 12억39백만불이고 2007년 제조업 6억4천만불 중에

서 전기전자가 3억82백만불이며 2008년 제조업 6억85백만불 중에서 전기전자가 1억69백만불이다. 2009년 제조업 11억65백만불 중에서 전기전자가 6억77백만불이다. 전기전자업종의 투자실적이 매우 높은 편이다.

